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돌아 가신 후 제자들은 갈팡질팡하고 있었다. 그런데 몇명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게 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다고 했다.(사도 2,1-13)

벌벌 떨기만 하고 매일 눈치만 보던 사람들이 확 바뀐 것이다. 그래서 확 바뀐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사도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기만 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한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고 첫 신앙 공동체가 생긴다.

**** 교재 참고(책이름, 저자, 저술연대) ****

제 1 부 예루살렘 교회(1,1-7,60)

1. 머릿말(1,1-5)

이 머릿말은 루가 24, 46-48과 아주 비슷하다. 루가는 당대의 풍습에 따라 자기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이미 자신이 쓴 책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치신 모든 일을 먼저번 책에 자세하게 기록했으니, 이제는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묘사하려 한다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2. 새 공동체 (1,6-2,47)

루가는 이제 교회의 출발점, 즉 교회의 원천을 묘사함으로써 초대 교회사를 기록해 간다. 교회는 획기적인 사건에서 발생되었다. 이 원초적인 사건은 바로 예수의 승천과 성령강림이다. 예수 부활, 승천, 성령강림은 모두 신비이다. 루가는 이 신비를 설명하기 위하여 사화를 꾸미고, 이 사화의 각 요소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신 신앙으로 받아 들어야할 사실을 이해시키고저 한다. 다시 말해 루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에서 출발하여 볼수 없는 사건의 의미를 밝혀 준다. 그 첫 단계로 루가는 승천하신 예수와 대기하는 사도단 사이에 이루어진 관계를 묘사하고, 그 다음 단계로 파견되신 성령과, 새 공동체의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교회 발전 과정에 활약하게 되실 성부, 성자, 성령과 사도와 공동체를 등장시킨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루가는 교회사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고 있다.

⑴ 승천하신 예수와 대기하는 사도단(1,6-26)

① 예수 승천(1,6-11)

루가 당대의 사고 방식에 따르면 우주는 지하, 지상, 하늘이라는 3단계로 나뉘어 있고, 지하는 죽은이들이 머무는 장소요, 지상은 인간 세계이며 하늘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루가는 예수께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승천 사화를 꾸몄다. 사실 초대교히 신자들도 이 표현을 상징적으로 알아 들었다.
* 구름 : 탈출 13,21-22과 다니 7,13에 의하면 구름은 성서적 의미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뜻한다.
* 예수께서 사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으며(1,9), 2열왕 2,9-11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대화를 상기시킨다.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스승이 남길 영검의 두 몫을 박게 되

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될 것이네" 즉 예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도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얼 즉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② 대기하는 사도단(1,12-26)

원래 예수께서 12제자를 뽑으셨고, 12명으로 구성된 사도단은 자기들이 옛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잇는 단체라고 의식히했다. 따라서 유다의 자리는 새로 채워져야 했던 것이다. 유다 대신 사도직을 맡을 마티아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를 보도하면서 루가는 사도의 조건을 자세히 밝혀 주며, 또 사도들의 명단을 발표함으로써 아무나 함부로 사도란 명칭을 가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11사도는 사람을 뽑는 유다교의 예식에 따라 마티아를 뽑았고 이제 새 이스라엘을 예고하는 사도단이 성령강림으로 이루어질 새 계약을 체결할 준비를 마무리 지었다.

⑵ 새 공동체 탄생(2,1-47)

① 성령 강림(2,1-13)

엄밀히 말해 루가가 성령의 강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도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찼다"(2,4)는 단순한 귀절로 눈으로 불 수 없고 오관으로 체험할 수 없는 사실을 전하고 있을 따름이다. 루가는 성령 강림의 의미를 밝혀 주기 위하여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야릇한 현상과 성령께서 해 내신 결과를 전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이 대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현상(2,1-3) :** 루가는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 혀 같은 것 … 불길처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건자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암시하고 있을 따름이다. 탈출 19장에서 산 밑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성령 강림 날에도 사도들이 모여 있었다. 루가는 탈출 19장 시나이 산에 하느님 발현 장면을 본따 성령 강림을 예고하는 현상을 표현함으로써 하느님 현존을 암시하고, 성령의 정체와 역할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 성령 강림의 결과(2,4) :** 사도들은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어로 말했다. 유다인들도 사도들의 말을 알아 들었다(2,11). 따라서 사도들은 여태까지 몰랐던 말로 그러나 남이 알아듣는 말로 말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방언현상이 아니라 예언 활동이다.

*** 유다인들의 반응(2,5-13) :** 사도들의 말을 듣고 모여든 유다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로서 예루살렘에 상주하던 사람들이다. 루가는 여러 나라의 이름을 전해 줌으로써 우선 세계 각지의 유다교인이 다 모였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유다인들은 하느님이 하신 놀라운 큰 일들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말에 놀란다. 이 놀라움은 신앙의 첫 단계이다. 예수의 행적을 보았을 때도 유다인들은 놀랐다. 그리고 대부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반면 일부는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②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2,14-41)

성령강림으로 인하여 사도들은 하느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한다. 즉 사도들은 새 예언자가 되어 새로운 법을 전하고 새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간다. 성령의 힘으로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새 백성, 성령을 모신 새 공동체를 이룬다. 말씀의 선포야 말로 성령이 내는 효과 중 가장 큰 것이요, 성령을 모신 사도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 이제 그 첫 활동으로 베드로가 설교한다. 이 베드로의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외국어의 예언을 설명한다(2,14-21) :** 베드로는 먼저 오전 9시라는 시간을 말하며 사도들이 술 취하지 않았음을 설명하고, 요엘 3,1-5을 인용하여 성령 강림의 의미를 밝혀 준다. 즉 하느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구원의 시대가 열렸으니 주님이 되신 예수께 귀의하는 자들은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 예수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선포(2,22-36) :** 예수의 지상 생활과 죽음과 부활은 옛 예언의 성취이며, 하느님께서는 예수를 주님과 메시아되게 하심으로써 당신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다.
*** 유다인들의 반응(2,37-41) :** 그들은 마음이 찔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질문한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권한다. 그 날에 3,000 명이 신자 단체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루가는 이렇게 교회의 발전을 자주 기록하고 있다.

③ 새 공동체(2,42-47)
첫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2장과 4장 두 번에 걸쳐 나온다. 함께 읽어 보자.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ㅇ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사도 2,44-47)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사도 4,32-35)

오늘날 소공동체 운동은 바로 이러한 초대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예수님의 부활 기적을 믿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한 신앙 공동체의 구현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최초의 새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인 공동체는
*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듣고, 서로 도와 주며,
* 빵 나누기를 거행하고,
* 기도생활에 전념했으며,
*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루가는 세 차례나 새 공동체를 소개하고 있다.

3. 예루살렘 공동체(3,1-5,42)

⑴ 베드로와 요한의 활동(3,1-4,31)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활약하시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표징을 보이심으로써 유다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힘과 에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를 고쳐준 베드로는 이를 보고 모여든 유다인을 상대로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유다교 장상들에게 체포된다.

① 베드로의 앉은뱅이 치유(3,1-10)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루가5,24) 하셨듯이 베드로도 스승의 말씀을 되풀이 하고 성령의 힘으로 앉은뱅이를 치유한다. 이 대목에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병자는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시선은 새로 개선된 대인 관계를 말해 준다. 이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옛 제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따뜻한 대인관계를 통해 인간은 구원 받고 하느님을 모시게 되었다.

*** 오후 세시 기도시간(3,1) :** 유다교의 전례에 따라 양 한마리, 밀가루, 기름, 포도주를 번제로 바치는 제사시간이었다(탈출 29,41). 옛 계약에 따라 하느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드리던 제사에 참례하러 성전에 올라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새 계약을 드러낸다.

② 베드로의 둘째 설교(3,11-26) : 이 설교는 유다인들의 기대와 유다교의 기대를 요약하고 예수의 역할을 소개하기 위하여 유다교에서 사용되는 의미 깊은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 유다인들의 기대 :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의 하느님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고, 모든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였다는 것이다.

* 유다교의 기대 : 그리스도는 약속과 예언의 성취이시며, 하느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계약(3,25)등이다.

* 유다교의 호칭 : 예언자를 보내시다. 아브라함의 후손

③ 법정에 선 베드로와 요한(4,1-22)

예수를 체포하고 재판했던 유다교 의회원들이 이제는 두 사도를 법정에 끌어 내어 재판한다. 예수께서 당하신 소송 장면을 되풀이 하면서(루가 22,66) 루가는 예수이 사명과 사도들의 활동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예수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던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베드로는 성령으로 가득차서 대답한다.

*** 베드로의 세번째 설교(4,8-12) :**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으며, 그 예수는 유다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느님께서 살리시어 구세주가 되게 하신 분임을 선포한다.

*** 유다교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태도(4,13-22) :** 사도들은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유다교 지도자들은 무식한 줄 알았던 사도들의 이러한 태도에 놀란다. 그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나, 사도들은 하느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기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한다.

④ 공동체의 기도(4,23-31)

하느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는 인간적인 위력을 물리칠 능력을 요청한다. 온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를 올렸다. 사도들은 협박에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 겁에서 헤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해달라는 요청은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성령강림의 축소판으로 끝나며 (집이 흔들렸다. 성령으로 가득찼다.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 사도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말은 포교활동의 특징이다.

⑵ 초대교회의 생활(4,32-5,42)

① 공동생활(4,32-37)

첫 공동체는 가진 것을 공동으로 씀으로서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본 뜻을 되찾고 있다. 인간은 재산의 주인이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는 봉사자일 따름이라는 것, 개인 소유권을 약화시킴으로서 형제애에 넘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공동체의 특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즉 재산의 공동관리에 역

점을 두고 보도하고 있다.
*** 바르나바의 재산 헌납(4,37) :** 바르나바가 밭을 팔아 그 돈을 교회에 바쳤다는 사실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 예외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다. 사실 초대교회는 재산 헌납을 강요하지 않았다.
② 아나니아와 삽피라(5,1-11) : 아나니아의 죄는 새 공동체의 원죄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죄도 없애야한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루가는 아나니아의 죄 이야기를 여호수아 7,1이하에 따라 묘사한다. 야훼께서 당신 백성에게 죄를 박멸하기 위하여 아간을 멸망시키셨듯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 부부를 죽이신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죄의 용서와 자비 문제보다도 교회가 악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교회내의 사건이다. 세상이 다 타락할 지라도 교회만은 끊임없이 회개하여 세상과 같이 타락해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루가의 사상이다.
* 여호수아 7,1-26 :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리고를 점령한 수 첫 범죄로 아간이 하느님께 바칠 전리품의 일부를 빼돌렸기에 하느님께서 아간을 죽이신다.
③ 사도들의 기적(5,12-16) : 이 부분은 갈릴래아에서 활약하시던 예수의 모습을 연사하게 한다. 그러나 사도들은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환자들을 낫게 하는 것이다. 사도들 안에서 새로움 모습으로 활약하시는 예수님을 가르치려 함이며, 또한 스승과 일치하여 스승을 닮는 제자의 모습을 말하려함이다. 사도들은 기적을 행함으로써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얻는다.
④ 사도들이 받은 두번째 박해(5,17-42) :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것은 주로 사두가이파들이었다. 초대신자득이 예수의 죽으심의 책임을 사두가이에게 돌렸고, 사두가이가 부정하는 부활을 증언하기에 더욱 그러했다. 사도들이 천사의 도움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말은 단순한 기적사화로 이해하기 보다 하느님이 몸소 사도들을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유다교 지도자들에게 기본교히를 선언하고 있다.
4. 박해 받은 예루살렘 교회(6,1-7,60)

⑴ 일곱 보조자 선택(6,1-7) :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 초대교회의 실제상황을 알아 볼수 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 간에도 교육, 문화, 언어 장벽 등 여러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교회의 일치는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도달해야 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사도들은 세계 각처에서 온 유다인 신도들을 위하여 7명의 보조자를 택하였으며 이들에게 사명과 권한을 부여하기 전에 기도하였고, 주님의 은총이 전달 되도록 안수했다. 오늘날도 기도와 안수는 서품예절의 핵심 부분이다.
⑵ 스테파노의 순교(6,8-7,60) : 스테파노의 체포당함과 순교는 예수님을 연상케 한다.
* 고발하는 자들의 거짓 증언, * 예수께 하느님 모독 죄를, 스테파노에게 성전과 율법 모독 죄를,
* 예수님처럼 스테파노도 자신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겼고,
* 예수님처럼 스테파노도 자신을 처형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한다.
만민의 사도가 될 바울로가 이것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말로써 바울로의 사명을 예고하고 있다.

⑶ 스테파노의 설교(7,1-53) :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중 가장 긴 설교로서 그 만큼 루가는 이 설교를 중요시하고 있다(부활3주 화요일과 스테파노 축일 미사독서이다)
* 7, 1-8 : 아브라함의 역사 요약 * 7,9-16 : 요셉의 역사
* 7,17-43 : 모세의 역사 * 7,44-50 : 성전 문제

* 7,51-53 : 예언자들과 예수를 죽인 유다인을 힐책함.
얼핏 보면 스테파노가 구약성서를 요약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의미는 다른 데 있다.

① 아브라함의 역사 요약 : 스테파노는 하느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음을 부각시켜 줌으로서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하느님의 활동이 이스라엘 땅에 국한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② 요셉 성조의 역사 : 요셉은 은총과 지혜로 가득찼으며 하느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창세 39,21의 말씀은 예수를 예고 한다.
③ 모세의 전기 요약 :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을 구하셨듯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백성을 살리셨다. 모세가 여러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백성을 구했듯이 예수께서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서 하느님의 계획대로 당신읭 백성을 살리셨고 이제 사도들이 모세처럼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④ 성전문제 : 하느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서 살지 않으신다. 하느님의 현존은 돌로 만든 집에 국한 될 수 없다. 성전이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섬겼고 율법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하느님을 모셨으니, 성전과 율법은 절대적 가치를 지닐 수 없고, 구원의 필수 조건일 수 없다.

제 2 부 전환기의 기록(8,1-11,18)

1.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진 복음(8,1-9,31)

루가는 예루살렘에 모여든 유다인들이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묘사해 준 다음 정통 유다교에서 멸시 받던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입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신명 23,2의 규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방되었던 내시들이 교회의 덕분으로 새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된 것을 말해준다.

⑴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8,1-3) : 스테파노의 순교와 교회에 가해진 가혹한 박해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고 보다 멀리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장차 말씀을 세상 끝까지 선포할 바울로는 전환기의 처음부터 등장하여 교회를 박해하고 있다. 바울로는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다는 사실을 수 차례에 걸쳐 시인한다.
* 사울 - 바울로 : "사울"이란 이름은 히브리 이름(사울왕)인데 희랍어로는 미약하다는 말과 비슷하므로 라틴말로 "바울로"로 이름을 고쳤다.

⑵ 사마리아에 전해진 복음(8,4-23) : 박해로 인해 사마리아로 피신하던 교회지도자인 필립보가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기쁨 속에 믿게 되어 세례를 받아 신자가 된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 필립보의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준다. 필립보의 세례를 통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효과를 내실 단계에 이른 것이라는 뜻이다. 즉 사도들은 필립보가 베푼 세례를 인정했으며 받은 세례를 풍성히 했을 따름이다. 필립보와 사도들은 합동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입교시켰던 것이고, 사도들도 각각 독자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⑶ **필립보와 에디오피아의 내시(8,26-40) :** 말씀의 선포는 지역에 국한될 수 없고 편협한 인간들의 사고방식에 묶여 놓을 수도 없음이며, 새 이스라엘의 진면목을 보여 주슨ㄴ 장면이라고 하겠다. 신명기에 의해 추방되었던 내시들도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⑷ **사울의 회심(9,1-31) :** 외교인들을 대상으로 펼쳐질 말씀의 선포를 약속하는 바울로의 소명은 사도행전의 획기적인 사건이다. 루가는 이 사건을 무려 세번이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만큼 이 사건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로의 개종과 소명은 그가 외교인들에게 파견됨으로써 보편적인 구원을 예고하는 것이다. 하느님과의 만남은 순수한 내적인 경험인 만큼 우리로서는 바울로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루가는 이 경험을 소명과 개종의 양식으로 기록하여 사건의 의미를 밝히려고 한다. 즉 세말과 관계된 체험을 하여 어둠 속에 헤메던 바울로가 신앙의 광명을 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끝으로 루가는 소명과 개종의 효과를 간단히 소개히 준다.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바울로는 자기가 얻은 새 신앙을 곧 다른 유다인들과 나누려 한다는 것이다.

2. 외교인이 입교(9,31-11,18) :

예루살렘의 유다인들, 세계 각지에 분산된 이스라엘 교포들, 이단자로 멸시받던 사라미아인들, 단체에서 제외 되었던 내시까지 세례를 받음으로써 입교했고, 이제 로마인 백부장이 외교인으로서 처음으로 입교함으로써 성령 안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했다고 볼 수 있다.
루가는 바울로의 개종과 소명을 전해 주면서 외교인들을 입교시킬 일꾼이 뽑혔고, 교회의 성장 조건이 다 마련되었다고 알려준다. 그런 다음 그는 하느님의 특별한 배려로 교회의 총 책임자인 베드로가 한 외교인을 받아들임으로 만민에게 구원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한다.

⑴ **치유 사화와 소생사화(9,32-43) :** 애네아의 치유(9,32-35), 다시 살게된 도루가(9,36-43)
루가는 이 부분에서 치유와 소생 기적을 기록하면서 예수게서 사도들과 맺으신 관계를 특별히 강조한다. 이 기적 사화는 복음서에 실린 예수의 기적 사화와 별 차이가 없다. 즉 루가는 베드로의 기적이 바로 예수의 기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루가는 외교인의 입교를 보고하기 전에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께서 환자를 고쳐 주시고 죽은자를 소생시키며 외교인들에게까지 새 생명을 베풀어 주심을 강조하고 있다.

⑵ **베드롸와 고르넬리오(10,1-48) :** 고르넬리오 백부장의 입교 장면은 사도행전의 핵심부분이다. 대목 자체가 긴편이면서도 중요한 귀절들이 네번이나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당대의 사학자들이 사용하던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서 루가가 이 대목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인의 입교를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고하면서 이를 이루신 하느님의 역할을 강조한다.

* 하느님의 천사가 고르넬리오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이 네번이나 반복되고,
* 베드로가 본 영상이 세번씩이나 되풀이 되고,

* 성령께서 베드로가 본 영상의 의미를 밝혀 주시며, 베드로에게 명령까지 내리신다.
* 베드로는 외교인들도 사도들과 꼭 같은 식으로 성령을 모셨음을 강조한다.

고르넬리오의 개종과 입교를 묘사하면서 루가는외교인의 입교는 하느님의 뜻이요, 하느님의 계획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또 한편 베드로의 지도권을 확신시켜 주고 있고, 교회의 총 책임자인 베드로에 의해 할례 문제와 외교인과의 공동식사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다루고 있다.

① 베드로의 네번째 설교(10,34-43) :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첫 설교의 내용과 비슷하다. 다만 "산이와 죽은이들의 심판자"라는 호칭을 예수께 적용했음이 특이하다.

②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10,44-48) :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본 할례 받은 신자들은 놀란다. 베드로와 교우들은 하느님의 선물인 성령이 고르넬리오 가족에게 내린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 없이 곧장 세례를 베풀라고 명한다. 이 부분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이다.

⑶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보고(11,1-18) :
교회가 외교인을 입교시킬 때 할례 문제와 유대계 신자들이 외교계의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였디. 원래 유다인들은 외교인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으며, 더구나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유다교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교회에 입교한 후에도 유다계 신자들은 이런 규정을 계속해서 지켜아하는 것으로 알았다. 예루살렘 교우들은 베드로에게 "할례 받지 않은 외교인에게 왜 세례를 주었는가?"하고 묻지 않고 "할례받지 않은 자의 집에 들어가 왜 그들과 함께 식사했느냐?"(11,3)고 따진다. 베드로는 그의 답변에서 외교인과의 식사도, 외교인의 입교도 하느님의 뜻이요, 성령의 역사이기에 내가 어찌 감히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답한다.

제 3 부 이방선교(11,19-28,31)

1. 안티오키아에 세워진 교회(11,19-30)

이방 선교는 안티오키아 교회 설립에서 비롯되었고 안티오키아 교회는 이방선교의 기점이되었다. 박해를 피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에 갔던 신도들은 그 곳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드이도 안티오키아 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드림으로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고,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교회의 독립성가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복음의 선포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루가는 안티오키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를 상세히 묘사해 주고, 바울로의 협조자도 예루살렘 공동체에 속한 교우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2. 헤로데가 교회를 박해하다(12,1-25)
선교활동을 묘사하면서 루가는 선교 조건을 함께 묘사한다. 박해는 교세를 약화시키기보다 오히

려 교회가 새로 발전하게 되는 기회가 되며, 선교의 조건이라고 한다. 첫공동체와 사도들이 벌써 수차례씩 박해를 당했고, 바울로도 박해를 각오하라는 주님의 경고를 받았으며 이제 헤로데가 교회를 박해한다.

⑴ 야고보의 순교(12,1-2)

주후 41년 왕위에 오른 헤로데는 교회의 장상들을 박해하였고 야고보를 죽였다. 루가는 사도들의 순교를 보도하지 않았는데, 단지 야고보의 순교만 전해 준다. 스테파노의 순교를 기점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되었듯이 야고보의 순교를 기점으로 이제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⑵ 감옥에서 풀려나온 베드로(12,6-19)

이 이야기는 루가가 바울로의 활동을 묘사하기 전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이며, 단순한 탈옥 이야기가 아니라 박해나 기근이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시련이고, 이 시련을 통해서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루가는 베드로의 체포와 투옥을 예수의 수난과 같이 묘사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의 수난과 부활을 배경으로 한 베드로의 수난기로 이해해야 할 사건이다.

* 예수께서 무덤에 누워 계셨듯이 베드로는 감옥에 누워 있었고,
* 경비병이 예수의 무덤을 지켰듯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
* 하느님이 예수를 살리셨듯이 하느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주었다.
*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여자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하였듯이 베드로가 와 있다는 여종의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 여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신 예수처럼 베드로도 야고보와 다른 교우들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말한다.
* 예수께서 승천하셨듯이 베드로도 다른 곳으로 떠나갔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꿈인지 생시인지 몰랐다는 말은 사건의 의미를 밝혀 준다. 베드로가 여러차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역사적인 사건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단순한 탈옥이 아니라 하느님의 안배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치시켜 주는 사건인 것이다. 사도들의 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를 닮게해 주는 사건들로써,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죽음을 당하고 예수와 함께 자유와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3. 바오로의 제 1차 선교 여행(13,1-15,35)

루가는 기행문 양식을 이용하여 출발점과 종점을 정확히 기록하고, 여정을 간략히 적은 다음, 여행 도중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만을 취급하여 로마 제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바울로로 인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의 발전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루가는 사건을 일일이 보도하기 보다 선교 여행의 의미를 밝히려고 의도하였다.

⑴ 선교 대상

루가가 묘사해 주는 선교사업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말씀의 선포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다. 바울로는 우선 이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유다인을 찾아가,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한다. 또 외교인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었다. 일반인들, 사회지도급에 속하는 자들, 그리고 로

마제국의 총독까지 복음을 들었다.

⑵ 선교 여행의 장애물

① 인생문제에 시달리는 인간은 하느님을 찾기보다 미신과 마술에 의지하려고 한다.
② 마술장이들이 바울로의 선교를 방해한다.
③ 유다교의 교세를 보존하기 위하여 살인도 불사하는 유다인들이 말씀의 성장을 막으려 했으나 하느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했다.

⑶ 선교 여행의 의미

선교 여행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신앙으로 받아드릴 하느님의 개입이다. 구원을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인간 사회에 개입하시을 들어 내는 계시의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⑷ 선교 여행의 결과

① 키프로스섬에서는 총독 세루기오가 개종하여 신도가 되었고,
② 비시디아의 안티오키아에서는 이방인들이 신도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 나갔다.
③ 이고니온에서는 도시 사람들이 두 갈래로 나뉘어 한 쪽은 유다인들을 지지하고 다른 쪽은 사도들을 지지하였다.
④ 데르베에서 기쁜소식을 전하여 많은 신도를 얻었다.
⑤ 돌아오는 길에 각 교회에 들려 원로들을 뽑아세웠다.

⑸ 바울로의 설교

초대 교회는 유다인을 상대로한 설교와 외교인을 상대로 한 설교 양식을 개발 했는데, 안티오키아의 설교와(13,16-41) 리스트라의 설교(14,15-17)가 대조를 이룬다. 안티오키아 설교는 유다인이 간직한 열망에 응답하여 성서를 많이 인용하는 반면에, 리스트라의 설교는 지방민의 미신을 공박하면서 창조 교리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⑹ 예루살렘 공의회

① 공의회 소집 이유(15,1-5) : 첫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티오키아에 돌아온 바울로는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였다. 그것은 유다로 부터 온 몇 교우들이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약속되었으니 외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율법을 예수보다 우선시키고 있었다. 바울로는 구원의 원천이신 예수의 절대적 역할을 재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② 베드로가 구원 원칙을 세우다(15,6-11) : 시도들과 원로들은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열었고 베드로는 유다인들이 지키지 못한 법을 외교인에게 부과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마련하셨으므로 불필요한 규칙은 폐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드로는 고르넬리오 백인대장을 입교 시킬 때 일어난 일을 상기시킴으로써 할례의 불필요성을 선언한다.
③ 야고보의 결정(15,13-21) : 야고보는 예루살렘 지방 교회의 책임자로서 지방교회의 화목과 일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지방교히에 속한 외교인 출신 교우들에게 규칙을 부과했다. 규칙 내용은 피를 먹지 말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라고, 음란한 행동을 피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 것 등이다.

4. 바울로의 제 2 차 선교 여행(15,36-18,17)

⑴ 바울로의 협조자들

둘째 여행을 준비할 때 마르코를 동반하는 문제로 바르나바와 바울로는 격렬한 논쟁을 하고 결국 서로 헤어져 바르나바는 마르코를 데리고 자신이 고향인 키프로스로 떠나가 버렸고, 바울로는 실라와 함께 안티오키아를 떠난다. 리스트라에서 훌륭한 협조자 디모테오를 만났고, 트로아스에서 루가를 만났고, 필립비 교회에서 리디아를, 아테네에서 다마리스를 고린토에서 아퀼라와 부리스길라를 만나 협조를 받았다.

⑵ 선교 여행의 장애물

첫번 여행에서도 루가는 선교 활동에 수반하는 어려움을 소개해 주었는데, 둘째 여행에서 바울로는 새로운 심각한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유다인들은 여전히 바울로를 박해했고, 바울로는 이제 로마 제국 당국과 부딪히게 되었다.

① 필립비에서 법정에 끌려가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혔다.
② 데살로니카에서 유다인들에 의해 치안관에게 고발당했다.
③ 아테네에서는 아레오바고 법정에 나서서 교회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했다.
④ 고린토에서 유다인들에 의해 법정에 끌려가 고발 당했다.
바울로는 용감하고 슬기롭게 이 모든 법적 장애물을 돌파하였다.

⑶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에서의 활동(15,36-17,15)

바울로는 첫 여행 때 창립한 교회들을 찾아갔다.
안티오키아를 출발하여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로 유럽 대륙(마케도니아)에 발을 디디게 된 바울로는 필립비, 아테네, 고린토 등 그리스의 대 도시들을 쉴새 없이 찾아 갔으며 관례대로 우선 안식일에 유다인의 회당을 찾아갔고 회당에서 추방될 때 외교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

⑷ 바울로의 아테네 설교(17,22-31)

바울로는 아테네의 고도의 철학 체제와 부딪힐 때 당황하지 않고 그들의 모르는 신에 대하여 말하겠다고 하며, 참 하느님을 소개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 한다. 그러나 희랍인들은 부활이란 말을 듣자 비웃으면서 떠나갔다.

5. 바울로의 제 3차 선교 여행(18,18-21,16)

셋째 여행은 상세한 활동보다 활동 전체를 요약해 준다.
이 여행 중에 바울로는 첫째와 둘째 여행 때 찾아 다니던 도시를 다시 한번 방문하여 창립한 교회를 견고히 하였다.
루가는 에페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수 없이 많은 도시의 이름을 열거하여 바울로의 활동 무대와 선교 활동을 요약하고 있다.

⑴ 에페소에서의 바울로(19,1-41)

에페소 교회 교우들과 아폴로는 예루살렘 교회와 관계없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있었기에 예수의 지상 생활을 알면서도 부활 신비와 성령 강림에 대하여 확실한 교리를 믿지 않았다. 바울로는 이들에게 안수하여 참된 신앙에 이르게 하였다. 루가는 바울로가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반증으로 에페소 은장이들의 소란 사건을 전해 주고 있다.

⑵ 바울로의 고별 연설(20,17-38)

루가는 스승 예수의 길과 제자가 걸어야 할 길이 완전히 같은 길임을 묘사해 주고있다. 예수처럼 바울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고, 예수의 수난 예고처럼 바울로도 자신의 수난예고를 에페소 교회의 장상들을 상대로 밀레도스의 고별 연설에서 하고 있다. 과거의 수고와 고생을 상기함ㄴ서 미래를 내다 보는 바울로는 이제 모든 교회를 주님께 맡기고 있다.

⑶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로(21,1-16)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로는 이를 만류하는 예언자를 만났지만 성령의 인도로 그들을 물리쳤다. 스승처럼 바울로도 이제 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6. 바울로의 수난기(21,17-26,32)

루가는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의 성장과 선포과정을 재평가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에 산발적으로 언급되던 주요 신학 사상을 요약하기도 한다. 바울로의 체포 경위와 억류 기간을 상세히 전수하면서 루가는 무엇보다도 유다교의 장상과 바울로 사이에 일어난 충돌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했다.

⑴ 먼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로마 제국의 당국 앞에서, 왕 앞에서 바울로는 하느님의 계획과 만민의 구원 가능성을 선포한다.

⑵ 바울로가 당하는 소송은 결국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인들의 거부 행위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의해 선포된 구원은 세말론적인 행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루가는 두번이나 다마스커스 관상을 기록했다.

⑶ 예수의 수난과 제자의 수난을 비교하여 말씀의 선포 활동이 제자가 예수를 닮게 되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① 사마리아에서 푸대접을 받은 예수처럼, 바울로도 에페소에서 배척을 당해야 했다.

② 예루살렘 입성 때 환영 받으신 예수처럼 바울로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환영을 받았고, 예수처럼 성전에 들어갔다.

③ 부활에 대해 토론한 예수처럼 바울로도 바리사이파들과 사두가이파들 앞에서 부활을 고백해야 했다.

④ 예수도 바울로도 선동자의 누명을 써야했고

⑤ 바울로도 예수처럼 유다인의 음모로

⑥ 로마 당국에 넘어갔고

⑦ 빌라도처럼 펠릭스도 체포된 바울로를 석장하려 했으나
⑧ 유다교 장상의 압력에 못이겨 결국 재판하게 되었다.

⑷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조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기에 바울로도 유다교의 세칙을 버리지않았고 성전을 모독하지도 않았다. 다만 하느님께 복종했을 뿐이다.

⑸ 만민이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계획을 강조하면서 루가는 구원의 핵심 즉 부활의 신비를 증언한다. 의회회원들 앞에서,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왕 앞에서, 바울로는 예수의 부활을 고백했다.

7. 복음의 승리(27,1-28,31)

예수의 말씀대로 복음이 바울로에 의해 "세상 끝까지" 선포되었다. 이제 바울로는 로마에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

⑴ 바울로의 로마행(27,1-28,16)
다른 죄수 몇 명과 함께 바울로를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한 페스도 총독은 바울로와 함께 교우 몇 명이 배에 타는 것을 허락했다. 그 중에 루가가 들어 있었다. 따라서 바울로의 로마행을 상세히 보도해 주는 이 대목은 틀림없는 목격자의 기록이다. 폭풍과 조난에서 또 멜리데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으나 기적적으로 바울로가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은 구원의 실현을 뜻한다.

⑵ 로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바울로(28,16-31)
루가는 바울로의 개인 사정, 즉 재판과 무죄 판결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전해 주지 않고 다만 말씀의 승리를 강조한다. 이제 제지를받지 않는 말씀의 선포는 외교인의 회개와 하느님의 통치가 이제 세상 끝까지 닿았다. 루가가 바울로가 순교한 훨씬 후에 사도행전을 작성했는데도 바울로의 마지막 날들을 전해주지 않은 것은 사도의 순교보다 말씀의 승리와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도의 승리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